



김래용(협성대)

## 1. 서론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한 백성’(겔 2:3), ‘패역한 족속’(겔 2:5, 6; 3:26, 27),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겔 2:4),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야웨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겔 3:7)로 불린다. 또한 에스겔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으로 야웨를 배반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너희 마음(ἡρῶν)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겔 20:32).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마음(ἡρῶν)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야웨가 다 아노라”(겔 11:5).

이러한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과 입으로 야웨를 불신하고 그에게 불평을 하고 있었다. 에스겔서의 여러 곳에 이들의 불평과 불신과 절망이 강조되고 있다. 에스겔 8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의 불평을 언급하며, 에

[www.kci.go.kr](http://www.kci.go.kr)

에스겔 9장 9절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불평을 언급한다. 에스겔 18장 25절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불평을 언급하며, 에스겔 33장 17절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언급한다. 에스겔 33장 10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라는 ‘이스라엘 족속’의 절망을 언급하며, 에스겔 37장 11절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절망을 언급한다. 에스겔 33장 24절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족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만을 언급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입으로 아웨게 불평하며 절망하며 폐역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sup>1)</sup>

그러면 이러한 불평과 절망에 대해 아웨는 어떻게 하셨는가? 에스겔 18장 25-32절(=겔 33:17-20절)을 보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불평에 아웨는 ‘의인과 악인’의 예를 들어 답변하시며, 에스겔 33장 10-16절에서는 ‘허물과 죄를 지은 우리가 어찌 살리요’라는 백성들의 절망에 아웨는 ‘돌이킴을 통해 살 수 있다’고 답변하신다. 또한 에스겔 33장 24-29절에서는 ‘자신들의 숫자가 많은즉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교만에 아웨는 ‘그들의 죄악’의 사례들을 예로 들어 답변하시며, 에스겔 37장 11-14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는 백성들의 절망에 ‘귀환약속’을 예로 들어 답변하신다. 이처럼 백성들의 불평과 절망에서 비롯된 질문에 아웨는 손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에스겔서가 질문/절망-답변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불평과 절망에서 생겨난 질문들이 특

1) 이러한 분위기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제의와 삶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1-19」(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1-19*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4), 304, 313 참조.

별히 에스겔 33-39장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단락에서 어떻게 답변되고 있는지를 7개의 주제로 정리하면서 에스겔 33-39장이 철저하게 백성들의 불평과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에스겔서에 독특하게 강조되고 있는 질문/절망을 확인하고 분석한 후 그것을 에스겔 33-39장에 강조되는 회복의 주제와 연결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관련된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에 나타난 언어와 구조와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 2. 연구동향

에스겔 33-39장의 구원신탁은 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38-39장을 분리하여 연구하였으며, 에스겔 33-37장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여기에 나타나는 핵심 개념만을 별도로 고찰하였다.<sup>2)</sup> 일반적으로 에스겔서의 주석서를 제외하고는 많은 에스겔서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에스겔 33-39장과 관련하여 독특한 주장을 한 몇 명의 학자들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보우트(Lawrence Boadt)는 에스겔 33-37장에 집중하여 이 단락의 기능을 연구하였다.<sup>3)</sup> 그는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단락(23-28절)이 에스겔 34-37장의 핵심주제를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보았으며, 에스겔 38-39장은 후대의 첨가로 신의 지배에 도전하는 적대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마지막 투쟁을 묘사한다고 보았다. 특히 에스겔 34-37장에 언급된 구원신탁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파기된 핵심적인 계약사상들(야웨의 주권; 땅의 소유; 땅의 정화; 포로에서 귀환; 다윗의 통치)의 재구성과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겔 33-37장이 에스겔 20장에 이미 언급된 조직적 프로

---

2)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24-432 참조.

3) Lawrence Boadt, "The Function of the Salvation Oracles in Ezekiel 33 to 37", *Hebrew Annual Review* 12 (1990), 1-21.

그럼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에 성결법전 특히 레위기 26장과 연결된 더 폭넓은 제사장적 개혁 프로그램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6단계의 일반적인 패턴이 에스겔 20장에 반영되고, 그것이 결국에 에스겔 33-37장에서 세부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렌즈(Thomas Renz)는 그의 책(*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에서 에스겔 33-48장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겔 1-24장)을 요약하고, 주전 587년의 유다 멸망 직후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에스겔 34장 이하에 언급된 구원신약이 독자들에게 읽혀질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기대되는 미래는 특성의 공동체(community of character)이며, 이러한 공동체가 됨으로써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포로들은 그러한 공동체로부터 합당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4-48장이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고 보았다. 그는 에스겔 33장 1절-36장 15절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스겔 37장은 어떻게 야웨의 영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변형시킬지에 대해 답변하고 있고, 에스겔 38-39장은 문학적 '카툰 스트립'(cartoon strips)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영원할 것'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에스겔 40-48장은 더 이상 과거(겔 1-33장)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또한 어떻게 그 공동체가 회복될지(겔 34-37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미래 사회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고 보았다.<sup>4)</sup>

위의 학자들이 에스겔 33-39장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면 몇몇 학자들은 구원신약에서 강조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마인(Andrew Mein)은 그의 책(*Ezekiel and the Ethics of Exile*)에서 에스겔서의 구원신약의 윤리 사상을 다루었다.<sup>5)</sup> 그는 에스겔 33장 이하에서 갑작스럽게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은 후대의 낯선 신학의 첨가로 인한 것이

---

4)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101-130.

5) Andrew Mein, *Ezekiel and the Ethics of Exi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6), 216-256.

아니라, 예언자의 포로적 환경과 그것의 최종편집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도덕적 수동성(포로들의 입장에서)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갱신은 야웨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회개나 필요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실패했던 도덕적 삶의 경계를 정확하게 통제하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실천적 지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에스겔서에 명백하게 강조되는 신중심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포로기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이스(Paul M. Joyce)는 그의 책(*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6)</sup> 에스겔 33장 21-22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보고는 심판신탁에서 구원신탁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고, 특별히 이것은 에스겔서가 다른 예언서들보다 더 정교한 편집적 조직화를 보이는 사례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조이스는 에스겔 34-37장도 어떤 정교한 편집을 경험했으며, 특별히 이 부분의 현재의 형태가 신명기적 편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는 논증될 수는 없지만 에스겔 자신이 신명기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에스겔이 신명기 활동의 주요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주전 597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거주하며, 신명기 운동의 몇 가지 관심들과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으며, 끌려간 이후에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활동한 신명기적 설교가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이 재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에스겔 34-37장은 포로에서의 돌아옴의 주제를 강력하게 강조하는데(겔 36:24; 37:12), 이 단락은 자연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공동체의 산물로 회복을 위한 희망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특별히 에스겔이 그의 메시지에 ‘루아흐’(רוּחַ)를 사용하며 급진적으로 신중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메시지가 인상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이스는 그의 주석서(*Ezekiel: A Commentary*)에서 예

---

6) Paul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09-124.

스겔 38-39장은 후대의 첨가로 묵시문학 이전의 형태를 보이며 에스겔 40-48장을 에스겔 37장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보았다.<sup>7)</sup>

위의 학자들은 에스겔 33-37장과 38-39장을 분리하여 연구하였으며, 본문 자체의 연구보다는 이 단락이 구약의 어떤 책과 관련되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에스겔 33-39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질문/질망-답변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 3. 에스겔 33장의 기능

에스겔 33장은 특이하다. 에스겔 3장 16-21절에 언급된 파수꾼 에스겔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33장 1-9절에 반복되고, 에스겔 3장 26-27절에 언급된 에스겔의 병어리 됨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33장 22절에 반복된다. 게다가 에스겔 18장 1-32절에 언급된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 33장 10-20절에 요약되어 나타나며, 에스겔 5-6장의 이상승배와 가증한 것들에 관한 말씀도 에스겔 33장 23-29절에 요약되어 나타난다.<sup>8)</sup> 그리하여 렌즈(Thomas Renz)는 에스겔 33장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겔 1-24장)을 요약하며,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 직후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음의 장들이 어떻게 읽혀져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9)</sup> 보우트(Lawrence Boadt)는 에스겔 33장이 에스겔 1-24장의 핵심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신학적인 주제를 반영하며, 에스겔 33장에 언급된 5개의 주제들이 에스겔 34-37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구원신탁의 전반적인 주제를 구성한다고 보았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에스겔 33장은 마치 에스겔 3장이 심판신탁(겔 4-24장; 25-32

7) Paul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New York: T & T Clark, 2007), 212-213.

8) Daniel I. Block, *룻글*, 235.

9) Thomas Renz, *룻글*, 105-106.

10) Lawrence Boadt, *룻글*, 7-8.

장)의 앞에 놓여 서론 역할을 하듯이 구원신약의 앞에 놓여 에스겔 34장 이하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 33장에서 인상적인 것은 백성들이 질문/불평하고 야웨께서 답변하는 형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는 1-20절과 21-33절에 각각 2번씩 언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에스겔 33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1) 질문/불평과 답변: 백성들의 죄악-야웨의 관심(겔 33:1-20)

에스겔 33장 1-20절은 백성들의 질문/불평과 야웨의 답변의 형식을 지닌 대표적인 단락이다. 이 단락은 도입(1-9절)과 2번의 질문/불평(10절; 17절)과 2번의 답변(11-16절; 18-20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요소들(도입; 질문/불평; 답변)은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절은 도입으로 10절 이하에서 다루어질 주제를 파수꾼의 사명의 중요성과 악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언급한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야웨께서 악인을 위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재임명했다는 것이다. 에스겔 3장에 언급된 파수꾼 임명에 관한 단락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 악인과 의인을 예로 드는데, 여기에서는 악인의 예만 나타나고 있다. 7절은 악인을 이스라엘 족속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악인이지만 야웨께서는 그 악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의 경고를 통해 그들을 구원코자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1-9절은 암암리에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은혜를 대조함으로써 야웨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10-20절은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은혜’를 질문/불평과 답변의 형식으로 2번 반복한다(10-16절; 17-20절). 먼저 10-16절을 보면, 이 단락은 백성들의 질문/불평으로 시작한다(10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니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커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탄식하고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



다.<sup>11)</sup> 이렇게 실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야웨는 답변한다(11-16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11절). 3번의 ‘돌이키다’와 수사학적 질문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를 통해 야웨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각된다. 야웨께서는 철저하게 악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웨는 백성들이 살길을 의인과 악인의 예를 들어 자세하게 안내하신다(12-16절).

17-20절은 두 번째 질문/불평과 답변을 언급한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 단락도 백성들의 질문/불평으로 시작한다 (17a절).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린버그는 이것을 백성들의 트집 잡기로 본다.<sup>12)</sup> 죄 없는 자신들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야웨는 오히려 이들의 길이 바르지 못하다고 반박하시며(17b절), 심판의 기준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들의 질문에 의인과 악인의 예를 들어 답변하신다. 비록 백성들이 악인이지만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살면 살 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악인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다.<sup>13)</sup>

이 단락은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의 예를 3번 반복함으로써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질문/불평과 야웨의 답변 형식을 2번 반복함으로써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불신과 야웨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공정함을 부각시킨다. 나아가 이러한 질문/불평과 답변은 에스겔 34-39장에서 강조되는 야웨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백성들의 질문/불평에 대한 답변임을 암시한다.

11) 박철우, 『에스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507.

12) Moshe Greenburg, *Ezekiel 1-20* (Garden City: Doubleday, 1983), 363.

13) 다른 주장을 위해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124-125 참조.



## 2) 질문/불평과 답변: 백성들의 죄악-야웨의 심판(겔 33:21-33)

에스겔 33장 21-33절도 위의 단락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백성들의 질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보여준다. 이 단락도 도입(21-22절)과 2번의 질문/불평(23-24절; 30절)과 2번의 답변(25-29절; 31-33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2절은 도입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소식과 병어리가 된 에스겔의 입이 열렸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기에 더 이상 심판의 말씀이 전개되지 않고 희망이 말씀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에스겔 3장 26절에 의하면 야웨께서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과거에 패역한 족속에게 야웨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단았던 야웨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 새로운 것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클라인(Ralph W. Klein)은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표현은 “어떻게 에스겔의 입이 희망의 말씀을, 즉 위대한 새로운 말을 강조적으로 말하도록 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편집자의 방식”이라고 보았다.<sup>14)</sup>

23-33절은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심판’을 질문/불평-답변의 형식으로 설명한다. 먼저 23-29절을 보면, 이 단락은 백성들의 불평 섞인 오만의 말로 시작한다(24절).<sup>15)</sup>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 땅을 소유했다, 우리는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땅이 소유로 주어질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오만한 선민의식에 야웨는 명확하게 답변하신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25-26절은 그들이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14) Ralph W. Klein, *Israel in Exi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71-72.

15) 이기락, 『에제키엘 예언서』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293-294 참조.

특별히 네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는 수사학적 질문은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sup>16)</sup> 27-29a절은 이들에게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을 말한다. 특별히 29b절은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이 야웨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 이 단락은 질문/불평-답변의 형식을 빌려 이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강조하면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각시킨다.

30-33절도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를 지닌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의 죄악이 부각된다. 이 단락도 백성들의 질문/불평으로 시작된다. 백성들이 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가서 듣자, 야웨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30절). 야웨는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에스겔에게 답변한다. 이것은 3인칭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너에게 올 것이고, 그들은 네 앞에 앉을 것이며,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응할 때에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것이다’(31-33절). 여기에서도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야웨의 심판을 암시한다.

이처럼 에스겔 33장은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를 4번 반복하면서(10-16절; 17-20절; 23-29절; 30-33절), 백성들의 질문과 불평과 오만과 그릇된 행위에 야웨께서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백성들의 죄악과 야웨의 은혜 또는 심판을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하며 동시에 야웨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 4. 에스겔 34-39장의 기능

에스겔 34-39장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에스겔 3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회복의 내용은 당시 백성들의 질

---

16) Moshe Greenberg, *Ezekiel 21-37*(New York: Doubleday, 1997), 688 참조.

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보인다. 할스(Ronald M. Hals)는 에스겔 34장을 포로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절망적인 불평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았으며,<sup>17)</sup> 렌즈는 에스겔 34장은 과거의 악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았다.<sup>18)</sup> 보우트는 에스겔 33-37장은 어떻게 미래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지에 대한 백성들의 의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다룬다고 보았다.<sup>19)</sup>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에스겔 38-39장에 언급된 곡의 정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곡이 현재의 문맥에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적 존재로 확실히 기능한다고 보았다.<sup>20)</sup>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에스겔 34-39장에 언급된 회복의 내용이 철저히 그 당시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질문/불평과 관련된 반응/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33장도 이러한 가능성을 하나의 실례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에스겔 34-39장이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어떤 질문/불평/절망에 대한 답변인지를 에스겔서에 나타난 백성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질문, 불평, 절망과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불평: 야웨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야웨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אֵין יְהוָה רֹאֶה אֶתָּנוּ)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2번 나타나는데, 에스겔 8장 12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בְּיַתְיִשְׂרָאֵל)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말하며, 에스겔 9장 9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בְּיַתְיִשְׂרָאֵל וּבְיַהוּדָה)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말한다. 블록(Daniel I. Block)은 장로들의 이러한 고백이 야웨께서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의 상실에 대한 절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망각으로 인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신에게 돌

17) Ronald M. Hals, *Ezekie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250.

18) Thomas Renz, *윗글*, 108.

19) Lawrence Boadt, *윗글*, 6.

20)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158.

아서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합리화 하고 있다고 보았다.<sup>21)</sup> 쿠퍼(Lamar E. Cooper)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태도를 반영하던 대중적인 주장이라고 보았다.<sup>22)</sup> 결국 이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야웨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오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신에 대한 반박이 바로 에스겔 34장과 35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 (1) 지도자의 회복(겔 34장)

에스겔 34-39장의 구원신약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주제가 지도자에 관한 것이다. 에스겔 34장은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강조한다. 왜 지도자의 문제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가? 이미 예레미야가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렘 23:1-6), 에스겔이 따르고 있는 것인가?<sup>24)</sup>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로 에스겔 34장을 본다면, 아마도 여기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해 이 당시 ‘지도자들의 백성에 대한 배신’과 더불어 ‘야웨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은 ‘야웨께서 우리를 로에(לֹאֵ) / 보다)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불평을 하였지만(겔 8:12), 에스겔 34장은 로에(לֹאֵ / 목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로에’(보다)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인 ‘로에’(목자)가 무관심하여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 34장은 로에의 배신을 비판하면서 야웨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3단계로 전개된다.

21)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293, 310.

22) Lamar E. Cooper, *Ezek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122.

23) Ronald M. Hals, *룻*, 250; Thomas Renz, *룻*, 108 참조.

24) Lawrence Boadt, *룻*, 9 참조.

1단계는 야웨의 관찰에 초점을 맞춘다(겔 34:1-8). 1-8절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지도자들’(רועי/로에)의 무관심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야웨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강조한다. 3-4절은 ‘로에’(목자)의 양에 대한 부정적 행위의 묘사를 통해 야웨께서 백성들의 고난을 철저히 지켜보고 계셨음을 부각시킨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먹고’(אכל), ‘너희가 털을 입고’(שבל), ‘너희가 기름을 드렸다’(זכה). ‘그러나 너희가 먹이지는 않고’(לא רעה), ‘너희가 강하게 하지 않고’(לא חזק), ‘너희가 고치지 않고’(לא רפא), ‘너희가 싸매주지 않고’(לא חבש), ‘너희가 돌아오게 하지 않고’(שוב לא), ‘너희가 찾지 않고’(לא בקש), ‘너희가 강압과 잔인함으로 다스렸다’(ררה). 5-9절은 이러한 ‘로에’의 무관심으로 양들이 흩어지고 헤매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으며, 심지어 ‘로에’가 양을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자기만 먹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에스겔 당시 백성들의 고난이 야웨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단계는 야웨의 대안에 초점을 맞춘다(겔 34:9-24). 9-24절은 양들의 고난을 지켜보았던 야웨께서 손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웨의 대안은 4가지로 정리된다. (1) 악한 목자들과 양들을 격리시켜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한다(9-10절). (2) 야웨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떼를 찾고, 본토로 데리고 가서,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풀을 먹이고, 높은 산에 두어 살진 풀을 먹게 한다(11-16절). (3) 숫양과 숫염소와 살진 양의 횡포를 차단하고 새로운 목자 다윗을 세워 양들을 다스리게 한다(17-24절). (4) 화평의 언약을 맺어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 평안히 거하게 한다(25-29절). 이러한 구체적인 열거는 야웨의 관심과 ‘로에’의 무관심을 대조하는 역할을 한다.

3단계는 야웨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겔 34:30-31). 이것은 언약문구와 인

지문구를 통해 부각된다.<sup>25)</sup> 이러한 야웨의 관심과 대안을 통해 ‘야웨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야웨의 백성이 될 것이며’, 백성들은 ‘야웨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야웨의 백성인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야웨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 야웨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음이 3개의 단계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2) 백성들의 명예 회복(겔 35장)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심판을 다룬다. 에스겔 25-32장에 이방나라들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에 에돔의 심판도 그 안에 있어야 당연하다. 예레미야 46-51장도 이방나라들의 심판에 에돔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별도로 에돔의 심판은 에스겔 35장에 언급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질문/불평-답변의 구조로 볼 때 이것 또한 백성들의 질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야웨의 백성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전 586년의 상황을 보면 명확해진다.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을 당할 때 방관하며 오히려 적군을 돕고 함께 착취하고 기뻐하였으며(욥 1:10-14 참조), 오히려 유다의 남쪽 지역을 습격하였다. 이런 일로 이 당시 에돔은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sup>26)</sup>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야웨께 실망하였던 것이다. 에스겔 9장 9절은 이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웨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אָמְרוּ ... יְהוָה יְהוָה רָאָה). 에스겔 35장의 에돔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10절)는 표현과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리다”(12절)와 같은 표현

25) 자세한 논의를 위해 Walther Zimmerli, *I Am Yahweh* (trans. Douglas W. Stott),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참조. 원제는 Walther Zimmerli, *Ich bin Yahweh*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53).

26) 도널드 E. 고웬, 「구약 예언서 신학」(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82-283 참조. 원제는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에돔의 사악한 행위를 야웨께서 직접 거기에서 보고 들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안(אָן)-라켄(רָכַן) 구조의 반복을 통해 부각된다.

1-4절은 도입으로 야웨께서 세일 산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5-15절은 세일 산(에돔)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특별히 야안-라켄의 형식을 2번 반복하여 심판의 이유가 에돔의 죄악 때문임을 부각시킨다. 그런데 에돔의 과거의 죄악(야안-에돔의 과거의 죄악+라켄-야웨의 심판, 5-9절)과 미래의 죄악(야안-에돔의 미래의 죄악+라켄-야웨의 심판, 10-15절)을 각각 1번씩 예로 든다.

5-9절은 야안-라켄 구조를 통해 ‘에돔의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을 언급한다. 먼저 5절은 에돔의 과거의 죄악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왜냐하면 (야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죄악의 마지막 때에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겼도다.’<sup>27)</sup> 6-9절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야웨께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1인칭을 사용하여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라켄)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며(אָנִי), 내가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רָכַן), 내가 왕래하는 자를 끊을 것이며(הִכְרַתִּי), 내가 죽임 당한 자를 산위에 채울 것이며(מְלֵאֵתִי),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אָנִי). 야안-라켄 구조를 사용하여 심판의 이유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 때문이며 심판자가 야웨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주전 586년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야웨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는 백성들의 원망에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0-15절은 야안-라켄 구조를 통해 ‘에돔의 미래의 죄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을 강조한다. 먼저 10a절은 에돔의 미래의 계획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야안)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 되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10b절은 이러한 말을 할 때 ‘야웨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27) 오바다 1장 10-14절은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답변인 것이다. 11절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을 다룬다. ‘그리하여(라켄) 나는 심판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것처럼.’ 야웨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10-11절을 정리하면 에돔의 미래의 죄악-야웨의 지켜보심-야웨의 심판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2-15절은 이러한 형식을 다시 되풀이 한다. 12-13절은 ‘이스라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삼기도록 주어졌다’는 에돔의 말을 ‘야웨께서 들으셨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야웨의 대적과 동일시하며 야웨가 에돔의 죄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14-15절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야웨의 심판을 언급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보복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야웨께서 백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2) 불평: 야웨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야웨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야웨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עָזַב יְהוָה אֶת־הָאָרֶץ)고 불평하였다.<sup>28)</sup> 과연 야웨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땅을 버리셨는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웨께서는 에스겔서의 구원신탁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에 산들에 대한 예언’인 에스겔 36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야웨께서는 버려진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에스겔 36장의 1-15절은 땅의 회복을 다루고, 16-38절은 땅과 더불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의 회복을 함께 다룬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 두 단락을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8) Ronald M. Hals, *윗글*, 52, 57 참조.

### (1) 땅의 회복(겔 36:1-15)

에스겔 36장 1-15절은 땅이 원수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이것의 회복이 철저하게 야웨의 주도하에 진행됨을 강조한다.<sup>29)</sup> 이것은 3단계로 강조된다(1-4절; 5-7절; 8-15절). 먼저 1-4절은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와 땅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야안-라켄의 구조가 2번 사용된다. ‘왜냐하면(야안) 그 원수가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라켄) 너는 예언하라’(2-3a절). ‘왜냐하면(야안)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유린하여 이방의 남은 자들의 기업이 되게 하였고, 너희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라켄) 이스라엘 신들이 주 야웨의 말을 들어라’(3b-4a절). 원인(원수들의 땅에 대한 핍박)과 결과(야웨의 반응)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야웨의 땅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5-7절은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고 비방한 원수들에게 행하신 야웨의 심판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야웨는 이스라엘 땅을 ‘나의 땅’이라고 부르며, ‘나의 질투’, ‘나의 분노’, ‘내가 맹세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원수들에게 적대적임을 부각시킨다. 야웨는 ‘나의 질투의 불로 이방의 남은 자들과 모든 에돔을 칠 것이며’(5절), ‘나의 질투와 나의 분노로 나는 말할 것이며’(6절),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7절). 야웨께서는 ‘나의 땅’을 황폐하게 한 자들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절대로 땅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8-15절은 이제 땅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원수들을 심판하신 야웨께서 주도적으로 땅을 회복하신다는 것이다. ‘야웨께서 땅을 버렸다’는 백성들의 불평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온전한 회복을 계획하신다.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하신다. 첫째로 토지의 회복을 약속하신다(8-9절).

29)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 35장 1절-36장 15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한다. Walther Zimmerli, *Ezekiel 2* (trans. James D. Mart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232 참조. 원제는 Walther Zimmerli, *Ezekiel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20-48」(정일 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322 참조.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20-48*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땅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며, 땅이 갈리고 씨가 뿌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황폐한 성읍과 황무지의 회복을 약속하신다(10-12절). 이것은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 강조된다. ‘내가 백성을 많게 할 것이며’(הַרְבִּיתִּי), ‘내가 백성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며’(הַרְבִּיתִּי), ‘내가 너희들을 예전처럼 살게 할 것이며’(הוֹשִׁבְתִּי), 내가 처음보다 더 좋게 할 것이며’(הַטְּבִיתִּי),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것이다’(הוֹלִכְתִּי). 셋째로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사라지게 할 것을 약속하신다(13-15절).

## (2) 땅과 사람의 회복(겔 36:16-38)

에스겔 36장 1-15절은 원수들에 의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야웨께서 땅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16-38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부정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들의 치료를 통해 땅이 온전히 회복됨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땅을 버리셨다’는 백성들의 불평에 야웨께서는 땅의 황폐함이 그들의 부정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이 단락도 3단계로 전개된다(16-20절; 21-32절; 33-38절).

16-20절은 땅의 황폐함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땅 위에 피를 쏟고(윤리적인 죄),<sup>30)</sup> 우상 숭배하는 죄악(종교적인 죄)을 저질러 야웨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야웨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 흩었다는 것이다(16-19절). 땅의 폐허가 철저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20절은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 야웨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야웨께서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악이 심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땅의 폐허가 철저히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1-32절은 사람의 회복을 통한 땅의 회복을 다룬다. 먼저 회복의 이유가 제

30) 에스겔 20장은 ‘피 흘림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한다.

시된다(21-23절). 회복의 이유로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יְהוָה אֱלֹהֵינוּ)라는 표현이 제시된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백성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sup>31)</sup> 이제 24-32절은 1인칭을 사용하여 야웨께서 직접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4개의 단계를 통해 전개한다(귀환-변화-풍성한 삶-회개). 1단계는 귀환이다(24절). 야웨는 ‘내가 너희를 취하고, 모으고, 데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회복의 출발점으로 귀환을 다룬다. 2단계는 백성들의 온전한 변화이다(25-28절). 야웨의 섬세한 노력이 강조된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며, ‘내가 준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일 것이다.’ 우상숭배와 피 흘림의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의 온전한 변화를 강조한다. 3단계는 백성들의 풍성한 삶이다(29-30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으로 인해 조롱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땅의 회복을 다룬다. 백성들의 회복을 땅의 회복과 연결하고 있다. 4단계는 백성들의 회개이다(31-32절). 주어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다. 백성들이 깨닫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32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야웨께서 이렇게 행함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님을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는 명령과 함께 마무리한다.

33-38절은 땅의 회복과 땅을 회복시킨 야웨를 이방사람들까지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먼저 33-35절은 땅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방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특별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31) 박철우, *룻길*, 537.

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땅이 이제 경작될 것이다’는 표현과 ‘사람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던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라’는 표현은 땅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한다. 특별히 ‘에덴동산 같이’라는 표현에 이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36절은 주변 민족들이 땅을 회복시킨 분이 야웨임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변 나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심지어 이방사람들까지도 이는 사실을 야웨의 백성은 무지하게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비꼬는 것이다. 37-38절은 36장의 결론으로 다시 한 번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은 땅의 회복이 철저하게 야웨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절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멸절되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백성들의 절망을 잘 드러낸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은 백성들의 절망의 상황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כָּל-בֵּית יִשְׂרָאֵל)이라는 표현이다. 에스겔 33-39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족속’(בֵּית יִשְׂרָאֵ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sup>32)</sup> 그런데 에스겔 37장 11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뒤따르는 15-28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 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에스겔 37장 11절의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2가지이다. 과연 뼈들이 살 수 있는가? 또한 누가 그것을 살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온 족속, 남유다와

32)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겔 33:7, 10, 11, 20; 34:30; 35:15; 36:17, 21, 22[2번], 32, 37; 39:12, 22, 23, 29).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은 오직 4번 나타난다(겔 36:10; 37:11, 16; 39:25).

33) Moshe Greenberg, *룻글*(1997), 744.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야웨는 이것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에스겔 37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2단계로 진행된다. 1-14절은 야웨의 능력으로 민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15-28절은 민족의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 (1) 민족의 회복(겔 37:1-14)

1-14절은 야웨의 능력으로 인한 민족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것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1-2절; 3-10절; 11-14절). 먼저 1-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를 강조한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표현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표현을 통해 이 민족이 오랫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었으며 회생하기 어려움을 강조한다.

3-10절은 야웨의 능력으로 인한 회복을 강조한다. 3절에서 야웨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묻고, 에스겔은 ‘주 야웨 당신이 아신다’고 대답한다. 오직 야웨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답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4-10절은 야웨의 능력으로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것은 1인칭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고’(אֲנִי מְבִי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נָתַתִּי), ‘내가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הִעֲלֵיתִי), ‘내가 너희 위에 가죽으로 덮고’(קָרַמְתִּי),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이며’(נָתַתִּי), 그래서 너희는 살아나 내가 야웨인 줄을 알 것이다’(5-6절). 회복의 과정을 열거함으로써 야웨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여했음을 강조한다. 7-10절은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다시 묘사 하는데, 여기에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자,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7-8절). 에스겔은 야웨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했다는 것

34) 임시영은 “에스겔 35장 15절 이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약속”이라고 본다. 임시영, “에스겔서 중 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에스겔 47장 13-48장 29절의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60-61 참조.

이다. 에스겔은 다시 되풀이 한다. ‘내가 명령받은 대로 생기에게 명령하자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들의 발로 서게 되었다.’ 특별히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했다’(7절, 10절)는 표현은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11-14절은 민족의 회복의 과정을 야웨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언급한다. 백성들의 절망에 대한 질문에 야웨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민족의 회복의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11절은 3개의 부정적인 동사를 통해 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강조한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할스는 이것이 포로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sup>35)</sup> 12-14절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야웨의 답변을 언급한다. 그런데 철저하게 야웨의 주권과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이 강조된다. 1인칭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너희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을 주고, 나는 너희를 너희 땅에 둘 것이다.’ 이것은 포로에서의 귀환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2의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 14b절에 배치된 인지문구는 이러한 과정이 철저하게 야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야웨를 제대로 인지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 (2) 민족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겔 37:15-28)

에스겔 37장 1-14절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5-28절은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남북의 하나 됨과 그들에게 베푸신 야웨의 은혜를 열거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한탄하며 고백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멸절되었다’는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야웨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 행동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손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전개된다(15-17절; 18-23절; 24-28절).

35) 할스는 이 본문을 연대적으로 포로기의 상황이라고 본다. Ronald M. Hals, *윗글*, 270.



먼저 15-17절은 남과 북의 하나 됨에 대한 야웨의 계획을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 언급한다. 야웨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고, 그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령한다.

18-23절은 질문-답변 형식을 통해 이러한 상징적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를 진술한다. 18절은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19-23절은 야웨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 됨에 대한 암시' → '포로에서의 귀환' → '이후의 삶에 대한 진술'의 순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1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의 주도권이 강조된다. '내가 요셉의 나무와 그의 짝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취할 것이며, 내가 유다의 막대기를 그것 위에 둘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하나의 나무로 만들 것이다'(19절). 그리고 '내가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취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의 땅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21-22a절). 22aβ-23절은 야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회복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이 그들이 야웨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위해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두 민족이 되지 않고,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가증한 것과 모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다.' 마지막에 언약문구를 배치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부각시킨다.

24-28절은 위에서 언급된 회복의 내용을 보충한다.<sup>36)</sup> 이러한 보충은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왕과 그와 관련된 백성의

---

36) 보우트는 에스겔 37장 23-28절이 앞의 4개의 장들(겔 34-37장)의 주요한 주제를 요약한다고 주장한다. Lawrence Boadt, *유태*, 15 참조.

삶, 언약과 성소와 관련된 백성의 삶이 묘사된다. 먼저 24-25절은 위에서 언급한 왕에 관한 내용(22절)을 보충한다. 한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과 관련되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충한다. 여기에서 야웨는 ‘한 왕’이 ‘나의 종 다윗’이며, 그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백성들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영원히 야웨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26-28절은 위에서 언급한 23절의 내용을 보충한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묘사한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둘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 민족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성과 거룩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충을 통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온전한 회복이 임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 4) 절망: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에스겔 38-39장의 독특함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sup>37)</sup> 한마디로 이 단락이 에스겔 33-37장과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에스겔 38-39장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는 에스겔 38-39장에 에스겔 특유의 언어와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기에 이 단락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sup>38)</sup> 스위니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연대문구를 중심으로 에스겔 33장 21절-39장 29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면서, 에스겔 38-39장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땅의 정

37)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niel I. Block, *유태(1998)*, 424-432 참조.

38) Joseph Blenkinsopp,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80-181.

화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에스겔 40-48장의 앞에 놓여 회복된 성전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39)</sup> 조이스는 에스겔서를 1-24장, 25-32장, 33-39장, 40-48장으로 나눔으로써 33-39장을 유다에 대한 희망의 말씀으로 분류한다.<sup>40)</sup> 고웬(Donald E. Gowan)은 “이 본문의 형성 연대가 어떠한 상관없이, 그것은 에스겔의 중요한 주제를 다시금 분명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sup>41)</sup>

위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에스겔 33-39장이 하나의 연대문구로 묶여있으며, 에스겔의 독특한 언어와 주제의 연속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스겔 33장은 앞에 놓여 서론 역할을 하고 38-39장은 뒤에 놓여 결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서론 역할을 하는 에스겔 33장에 하나의 질문이 나타난다.<sup>42)</sup>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אִיךָ נִחְיֶה). 고웬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표현이 에스겔 33-48장의 주제로 적합한 듯 보인다고 주장하였고,<sup>43)</sup> 박호용은 에스겔 38-39장에 언급된 곡과 그의 무리에 대한 야웨의 심판신약에는 야웨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더 이상 야웨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게 하려는 최종편집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sup>44)</sup> 따라서 서론 역할을 하는 에스겔 33장에 언급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회의에 대해 에스겔 38-39장은 그것이 야웨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장을 분리하여 각 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9) Marvin Sweeney, *유태*, 156-159. 스웨니는 에스겔 33장 21절-39장 29절을 한 단락으로 보며, 이 신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거의 1년 반이 지났을 때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

40) Paul M. Joyce, *유태*(1989), 21.

41) 도널드 E. 고웬, *유태*, 312.

42) 블록은 이것을 백성들의 절망을 강조하는 질문으로 본다. Daniel I. Block, *유태*(1998), 246.

43) 도널드 E. 고웬, *유태*, 316.

44) 박호용, “야웨인지공식의 관점에서 본 에스겔 38-39장의 편집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57-58; 박호용, 『에스겔 주석』 (서울: 도서출판 예사빠전, 2015), 402 참조.

### (1) 야웨의 주권 회복—이방 나라에게(겔 38장)

에스겔 38장은 2개의 인상적인 인지문구를 포함하는데, 16절과 23절에 배치되어 있다. 16절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23절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한다. 마치 각 단락의 끝에 배치되어 결론 역할을 하는데, 이 인지문구의 핵심은 야웨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 사람의 눈에’(לְעֵינֵיהֶם... יָרַעַת הַגּוֹיִם אֹתִי)라는 표현과 ‘여러 나라의 눈에’(לְעֵינֵי גּוֹיִם רַבִּים)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방나라에 야웨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무능하게 보였던 야웨의 주권을 여러 나라에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곡과 동맹국들이 하나의 실례로 사용되는 것이다.

에스겔 38장은 위에 언급된 2개의 인지문구를 중심으로 1-16절과 17-23절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2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곡이 철저하게 야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8절),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16절),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17절).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 당시 이방나라의 대표였던 곡이 야웨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눈에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1-16절은 ‘곡의 정체’와 ‘곡이 야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2번 반복한다(1-9절; 10-16절). 먼저 1-9절을 살펴보자. 1-6절은 곡과 동맹국들의 심판을 다루는데, 특별히 동맹국의 대표자인 곡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강조한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돌이켜,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다’(3-4a절). 4b-6절은 야웨께서 끌어내 심판할 명단을 언급한다. 블록은 특별히 일곱 나라(메섹, 두발, 고멜, 벤-도갈마, 바사, 구스, 붓)가 언급되는데, 메섹과 두발과 고멜과 벤-도갈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세계의 북쪽 끝을 대표하고, 바사와 구스와 빛은 남쪽 끝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모든 세계가 이 공격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45)</sup> 이렇게 볼 때 야웨는 세상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강조되는 것이다. 7-9절은 이러한 주권을 가진 야웨께서 심판의 도구로 곡과 동맹국들을 세워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이제 10-16절을 살펴보자. 10-13절은 심판의 도구로 부름 받은 곡과 동맹국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쳐서 은과 금을 노략하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약탈할 것을 말한다. 비록 이들이 야웨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고히 한다. 14-16절은 다시 한 번 이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곡과 동맹국들이 북쪽 끝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며’라는 표현은 이들이 야웨의 도구로 예비 된 존재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야웨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17-23절은 이 당시의 강대국인 곡의 심판을 다루는데, 곡이 오래전부터 야웨의 도구로 예비 되었음을 강조한다. 17절은 곡이 심판의 도구로 예비 되어 이스라엘을 칠 존재임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사실은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는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부각된다. 18-22절은 ‘야웨의 도구로 예비 된 존재’이지만 결국에는 곡과 동맹국들이 야웨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이라는 표현이다. 곡을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심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웨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다. 역사가 야웨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강대국의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야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23절은 이것을 통해 세상 나라에 야웨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

45) Daniel I. Block, *룻기*(1998), 441. 블록은 70이라는 숫자가 전체성과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2) 야웨의 명예 회복-이스라엘에게(겔 39장)

에스겔 38장이 이방나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에스겔 39장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에스겔 38장과는 달리 39장은 ‘이스라엘 산’(2절, 4절), ‘이스라엘 가운데’(7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7절), ‘이스라엘 성읍들’(9절), ‘이스라엘 땅’(11절), ‘이스라엘 족속’(12절, 22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에스겔 39장의 메시지가 이스라엘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특별히 22절과 28절은 이 메시지의 목적을 잘 보여준다. 22절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라고 말하며, 28절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야웨를 제대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에스겔 33-37장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인지문구가 각 단락이 강조하는 주제와 함께 언급되었다(33:29; 34:27; 35:4, 9, 15; 36:11, 23, 38; 37:13, 14, 28). 그러나 에스겔 39장은 에스겔 33-39장의 마지막에 놓여 이 단락의 결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다양한 주제를 강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 인지문구가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곡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야웨께서 무능한 분이 아니며,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는 것이다.<sup>46)</sup>

이것을 위해 에스겔 39장은 곡과 동맹군의 멸망 이후의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 야웨의 회복을 강조한다. 먼저 1-22절은 곡과 동맹군의 멸망과 그 이후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을 소개한다. 1-7절은 곡의 멸망을 다루는데, 특별히 그 목적이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46) 박호용, *윳글*(2015), 402; Walther Zimmerli, *윳글*(1982), 30-39 참조

하려는데 있다고 말한다.<sup>47)</sup> 8-16절은 곡과 동맹군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무기와 시체들을 처리했음을 다루는데,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 땅이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이름/명성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17-20절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큰 잔치가 있음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잔치가 야웨께서 예비한 잔치임을 강조한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시체를 매장하며, 야웨께서 손수 예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야웨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1-22절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야웨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23-29절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정리한다. 이것은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23-24절)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진 이유를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하여 야웨와의 관계가 깨졌음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25-27절)는 야웨의 계획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땅에 평안히 거주하게 함으로써 죄를 누우치게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28-29절)는 야웨의 약속이다. 이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으나,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함으로써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고, 야웨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29절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은 야웨와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sup>48)</sup>

---

47) 자세한 설명을 위해 고웬, 윌글, 305-309 참조.

48) ‘얼굴을 가리다’라는 표현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 Samuel E. Balentine, *The Hidden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 5. 결론

에스겔 33-39장의 구원신약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전후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에 품고 있던 불평과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서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답변을 통해 야웨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에스겔 33장은 이 단락의 서론으로 백성들의 불평과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의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에스겔 34-39장의 주제들이 이전에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질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임을 암시한다. 에스겔 33-39장이 질문/불평-답변 구조의 형식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스겔 34장은 지도자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야웨께서 우리를 로에(לֹא/보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의 질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불평에 야웨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려운 것은 야웨께서 ‘로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로에(לֹא/목자)의 폐역 때문임을 언어유희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심판을 다루는데, 이것이 에스겔 25-32장(민족들의 심판)에 언급되지 않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 이것은 ‘야웨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의 질문/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하여 에돔이 유다의 최고의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야웨는 에돔의 심판을 예로 들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36장은 땅의 온전한 회복을 다루는데, 이것은 ‘야웨께서 땅을 버리셨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야웨께서 땅의 회복과 더불어 땅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야웨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에스겔 37장은 민족의 회복을 다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멸절되었다’는 백성들의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다. 야웨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 됨을 통해

그들의 절망에 답변하고 있다. 에스겔 38-39장은 곡과 동맹국들의 심판을 다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이스라엘 족속의 절망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웨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곡과 동맹국들의 심판을 통해 이방나라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 6. 참고문헌

- 고웬, 도널드 E., 「구약 예언서 신학」(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원제는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105-133.
- 박철우, 「에스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박호용, “야웨인지공식의 관점에서 본 에스겔 38-39장의 편집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호용, 「에스겔 주석」(서울: 도서출판 예사빠진, 2015).
- 알렌, 레슬리 C. 「에스겔 1-19」(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1-19*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4).
- 알렌, 레슬리 C. 「에스겔 20-48」(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20-48*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 이기락, 「에제키엘 예언서」(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에스겔 47장 13-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58-85.

- Balentine, Samuel E., *The Hidden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Blenkinsopp, Joseph,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Boadt, Lawrence, "The Function of the Salvation Oracles in Ezekiel 33 to 37", *Hebrew Annual Review* 12 (1990), 1-21.
- Cooper, Lamar E., *Ezek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Greenburg, Moshe, *Ezekiel 1-20* (Garden City: Doubleday, 1983).
- Greenberg, Moshe, *Ezekiel 21-37* (New York: Doubleday, 1997).
- Hals, Ronald M., *Ezekie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Joyce, Paul,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Joyce, Paul M., *Ezekiel: A Commentary* (New York: T & T Clark, 2007).
- Klein, Ralph W., *Israel in Exi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Mein, Andrew, *Ezekiel and the Ethics of Exi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6).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 Sweeney, Marvin A.,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Zimmerli, Walther, *I Am Yahweh* (trans. Douglas W. Stott),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원제는 Walther Zimmerli, *Ich bin Yahweh* (Tübingen:

gen: J. C. B. Mohr[Paul Siebeck], 1953).

Zimmerli, Walther, *Ezekiel 2* (trans. James D. Mart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원제는 Walther Zimmerli, *Ezekiel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검색어

에스겔 33-39장

에스겔 33장

구원신탁

심판신탁

질문-답변

## The Functions of the Salvation Oracles in Ezekiel 33-39

Rae-Y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unctions of the salvation oracles in Ezekiel 33-39. I will argue that the subjects of this pericope are the Lord's answers to questions/complaints of the house of Israel. For that purpose, therefore, I will find out the questions/complaints and then analyze the languages, structures, and contents of both the questions/complaints and the pericope.

The salvation oracles in Ezekiel 33-39 are the Lord's answers to the people's questions related to their complaints and despairs before or after the fall of Jerusalem. Ezekiel 33 is an introductory example of the Lord's answers to the questions/complaints of the people, suggesting Ezekiel 34-39 also is the Lord's answers to the questions/complaints that the people had.

Ezekiel 34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leadership as the Lord's answer to a question/complaint of the elders in the house of Israel, "the Lord does not see us."

www.kci.go.kr

Ezekiel 35 deals with the judgment of Edom as the Lord's answer to a question/complaint of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the Lord does not see." Ezekiel 36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land as the Lord's answer to a question/complaint of elders and people in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the Lord has forsaken the land." Ezekiel 37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house of Israel as the Lord's answer to a question/complaint of the whole house of Israel, "we are cut off completely." Ezekiel 38-39 deals with restoration of the Lord's sovereignty and fame as the Lord's answer to a question/complaint of the house of Israel, "how can we live?"

In sum, it is likely that several subjects of restoration related to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in Ezekiel 33-39 might be related to the Lord's promises for the captives in the period of the exile. Readers might easily understand the subjects in Ezekiel 33-39 from the perspective of the questions/complaints and their answers.

Keywords

Ezekiel 33-39

Ezekiel 33

salvation oracles

judgment oracles

questions-answers

- 투고일: 2018년 1월 1일
- 심사일: 2018년 1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2월 1일

[www.kci.go.kr](http://www.kci.go.kr)